



북구는 13일 청사 상황실에서 13개 단체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맞손' 북구, 13개 단체와 사업 약정식

울산시 북구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13개 단체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북구는 4개 분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13개 사업을 심의해 든든한 이웃만들기 사업에 농소1동 행복나무 1개 사업 △소소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사임당의 도담도담 울타리 등 7개 사업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농소2동 마을축제기획단 등 2개 사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에 농소1동 주민자치회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노인돌봄, 공동육아, 마을환경정비, 마을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선정된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뿐만 아니라 단체간 소통을 도모하는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성과공유회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는 매년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간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김원경 기자

울산신문

2021년 04월 14일 수요일 007면 사회

'염포 사랑단' 사업 추진 본격화

착한화분 만들기·골목 벽화 등

울산 북구 염포동 마을계획단이 울산시 마을계획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웃음꽃 피는 염포 사랑단' 사업을 추진한다.

'웃음꽃 피는 염포 사랑단'은 앞으로 불법주차 방지 착한화분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이야기가 담긴 골목벽화 조성, 소금포 역사관 방문객 대상 소금관련 상품 만들기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마을계획단 공모사업은 10인 이상 마을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 마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가람기자 kany218@

울산광역매일

2021년 04월 14일 수요일 005면 사회



울산 북구가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13개 단체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약정식

농소1동 '든든한 이웃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 선정

울산 북구가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13개 단체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북구는 4개 분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13개 사업을 심의해 든든한 이웃만들기 사업에 농소1동 행복나무 1개 사업, 소소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사임당의 도담도담 울타리 등 7

개 사업,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농소2동 마을축제기획단 등 2개 사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에 농소1동 주민자치회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노인돌봄, 공동육아, 마을환경정비, 마을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선정된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뿐만 아니라 단체간 소통을 도모하는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성과공유회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는 매년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간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1년 04월 14일 수요일 005면 사회

북구 염포동, 울산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선정

내달 '웃음꽃 피는 염포 사랑단' 추진...골목벽화 조성

울산 북구 염포동 마을계획단이 울산시 마을계획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웃음꽃 피는 염포 사랑

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웃음꽃 피는 염포 사랑단'은 앞으로 불법주차 방지 착한화분 만들기 활

동을 시작으로, 마을이야기가 담긴 골목벽화 조성, 소금포 역사관 방문객 대상 소금관련 상품 만들기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염포동 마을계획단 김홍수 단장은 "이번 마을계획단 사업을 통해 염포동 마을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해 지기를 기대한다"며 "마을브랜드 가치가 높

아질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마을계획단 공모사업은 10인 이상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스스로 마을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 마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지은 기자